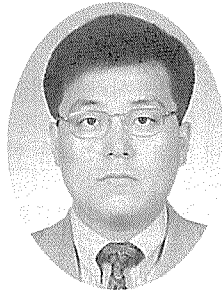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어떻게 볼 것인가



김희선

〈 LG-Caltex 정유 업무팀 과장 〉

1. 석유산업 위기론

석유수요 감소
대비책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하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며
21세기
한국석유산업의
생존전략이나
다름없다

1996년도 정유사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3조 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환차손 및 석유화학 부문의 불황 등으로 순이익은 33%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금년부터 시작된 유가자유화 등 일련의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는 다소 무리인듯 했으나 대외개방 경제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더 이상 저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석유산업 자유화 원년은 외형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99년의 대외개방에 쏠려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비록 유가 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더라도 결코 자신감에 차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가격이 자유화된 이웃 일본의 경우, 원매회사 / 주유소의 지속적인 수치 악화는 우리가 「강 건너 불」 정도로 바라만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이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정제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상류부문이 지극히 취약하고 고도화시설 비율도 11% 정도 (미국 55%, 싱가포르 29%)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과연 메이저들의 공세에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작년 중반부터 대두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얼핏 「석유산업의 쇠퇴」라는 새로운 위기론(?)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 석유 시대는 끝났는가?

우리나라의 석유 수요는 '87년 이후 매년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95년 증가율이 8.9%로 한풀 꺾인 이후 올해는 '96년 대비 7.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석유수요 증가율의 둔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어 2%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석탄을 제외한 여타 에너지원 평균 수요 증가율을 하회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표-1 참조)

〈표-1〉 최종 에너지 장기수요 전망

	연평균 증가율(%)		
	1995-2001	2001-2006	2006-2020
석 유	5.7	2.3	1.8
석 탄	1.2	2.2	0.1
신 재 생	14.4	12.6	5.0
전 력	8.4	4.3	2.4
열에너지	19.8	17.6	5.2
도시가스	16.9	6.3	3.7

〈자료〉 통상산업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연구」 1996.12

(표-1)을 보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접하게 된다.

- 석유 수요 증가율의 급격한 하락은 과연 석유산업의 위축을 뜻하는가?
- 산업 발전의 역군이던 석유는 이제 그 화려한 시대를 마감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표-2)를 살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선진국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대체로 1~2%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수요 성숙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표-1>의 데이터는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석유 시장도 이제 성장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문영석 박사는 석유협회보('96. 5)를 통해 자동차가 생필품화됨에 따라 석유도 점차 소득탄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득 1만불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석유 수요가 점차 선진국형화되는 신호로 해석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연착륙을 통해 서서히, 반대의 경우에는 급속히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 바 있다. 즉 석유산업이 양적 팽창의 단계를 지나 질적 성장의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기의 가설 및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
선 조직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즉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분야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은 확실하다.

〈표-2〉 주요국의 석유소비 증가율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한국	21.1	9.8	10.1	8.9
미국	2.2	0.9	2.6	△0.4
캐나다	0.0	2.9	2.2	1.6
OECD 유럽	1.9	△0.3	0.02	1.2
일본	2.6	△2.3	6.2	△0.4
아시아 개도국	10.2	7.5	7.5	7.3

〈자료〉 대한석유협회 「석유연보」 1996

3.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술하였듯이 석유수요 증가율의 둔화는 우리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이 임박함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러므로 석유수요 감소 대비책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하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며, 21세기 한국 석유산업의 생존전략이나 다름없다. 개념을 확대 해석한 이유는 단순히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다가올 21세기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소 공격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사업 영역의 확장이다. 국외적으로는 공급의 안정성 및 수직계열화를 위한 해외유전 개발 참여와 그동안 축적된 정제기술 및 유통 노하우를 활용한 중국·동남아국가로의 하류부문 진출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국내쪽으로는 주유소내 편의점/경정비 등 유회사업 확대를 꾀할 수 있다. 그 밖에 타 에너지 사업, 이를테면 LNG, 도시가스, 전력 등의 청정연료나 발전사업으로의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분야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위의 사업에 대한 각론은 생략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사업분야의 확대는 개별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취사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사업 외적인 보다 근본적인 분야, 즉 조직의 변화(리스트럭처링 등)와 고객·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즉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분야에 과감히 뛰어 들 수 있는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층의 정확한 판단과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우선임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기존 사업부문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제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

석유산업은
환경보호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명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계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 및 자원은 사업다각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직영대리점의 통·폐합, 생산과 판매의 사업부문 분리 등 국내 석유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는 석유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석유산업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공해산업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억울하다고 강변하기에 앞서 환경보호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명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지상주의이다. 정유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이 항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끝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정부의 역할이다. 오랫동안 석유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보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석유산업이 퇴보한다면 그건 이미 자유화도, 효율성도, 석유수급 안정도, 아무 것도 아닌 국내 경제의 퇴보일 뿐이다. 석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세제 개편 등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국가적인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차량연료 대체 논의나 지나친 환경규제 시책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4. 자, 다시 미래로!

석유는 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이자 생활 필수품이다. 도대체 우리 생활이 석유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석유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보석이며 인류 문명 발달의 산 증인이다. 앞으로 석유가 얼마나 더 인류와 함께 할지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으나, 현재 석유를 대체할 획기적인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반세기동안 석유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가 구르고 공장이 돌아가는 이상 석유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국내시장에서의 석유 소비는 감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석유수요 감소(정확히 말하면 수요 증가율의 둔화)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예측한 바 있으며, 구미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에 이렇게나마 명확하게 미래를 제시해주다니 차라리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 친절한 계시를 정확히 해석하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 석유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을 가지고 묵묵히 일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야말로 盡人事 待天命이 아닐까. ☺

석유 수요 감소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제시해 준
친절한 계시다.
이 계시를
정확히 해석하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 석유업계에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